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종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5월은 가정의 달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힘써야-

가정제도는 교회와 국가 제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아버지 주일, 스승의 주일이 있는 달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가족과 함께 소풍을 나가거나 외식을 하는 것으로 가정의 달을 보내는 이들이 많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써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가족간에 협력하는 섬김의 공동체, 범사를 감사로 채우는 믿음의 공동체, 항상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부서지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쁨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정이 되게 하자.

나눔의 집에 참여합시다.

지난 3월21일 개소한 '나눔의 집'이 그동안 성도들의 꾸준한 관심 가운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주간의 운영결과 1000여 벌의 의류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매주

100여벌의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는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뻐하실 일이다.

계속하여 '나눔의 집' 운영에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10년, 그 뜨거운 자취를 켜다.

교회설립 10주년 기념 사진 열린다.

다음달 5월 2일 (수) 부터 7월 4일까지 '교회설립 10주년 기념 사진전'이 열린다.

이 행사는 서울교회의 10년의 발자국을 살펴보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에 이미 많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지만 성도들의 가정에 소장하고 있는 생생한 사진들이 더 필요하다.

사진을 출품할 경우 뒤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사진 설명을 붙여 사무국에 출품해주길 당부한다. 이달 말까지 성도들이 보내준 사진과 교회보관 사진 등을 모은 뒤 5월 2일에 교회 5, 6, 7층에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또 서울교회 역사편찬위원회는 오는 11월 창립 10주년 기념주일과 때를 같이 해 "서울교회 10년사"를 편찬하고자 집필 중이다. 이와 함께 10년의 자취를 담은 영상물을 만들어 CD로 제작하려고 한다. 지나온 십 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 일을 더욱 이룸답게 하기 위한 일들이라 생각하며 이 일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 4월 등록 새가족 환영회를 가진다.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열린다.

4월 새가족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고옥경 광노국 권기현 권예현 김경숙 김나량
 - 김도희 김말선 김성연 김세진 김수복 김수진
 - 김영옥 김옥순 김인정 남효숙 박명엽 박영미
 - 박영희 박우주 배정순 서영세 서해숙 손상준
 - 송양중 신규식 신선영 원소저 윤동수 윤명구
 - 윤소구 이갑진 이경자 이백순 이상열 이숙경
 - 이순삼 이윤희 이이성 이정호 이창균 이현석
 - 이화자 이희란 인명민 장기숙 전수연 정동권
 - 정연희 조명옥 조연옥 조영희 최홍모 황금진
- 그리고 오늘 등록한 분들

금주의 말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개역개정판 요9:1-3)

And as Jesus passed by, he saw a man which was blind from his birth. And his disciples asked him, saying, Master, who did sin,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Jesus answered, Neither hath this man sinned, nor his parents: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John9:1-3)

지난주 이모저모



농어촌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 한국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분들 ①, 특강을 하는 이종윤 목사 ②

탈북난민 UN청원 운동 1000만명 서명틀따 감사예배 및 UN청원 대표단 파송식 -탈북동포들의 감사 찬양 ③

에바다부 특강 - 홍유미 간사의 특강 ④과 수화찬양단의 특송 ⑤



이사야서 강해

섬김을 받으실 참 하나님

이사야 (44:21 - 28)



이중운 목사

1. 하나님은 왜 섬김을 받아야 하나

(1)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 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21절). 우리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21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가끔 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한 시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2) 우리 죄를 도말 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네 허물을 뽀뽀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22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 하시고 우리를 구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 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22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하며 산 죄,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의 축복 보다 인생의 행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인간의 인정을 받기 좋아했던 죄도 하나님은 다 도말 하시고 구원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23절).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남은 삶 동안은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곧 예배며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3) 인간 개체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군중 속에 숨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몇 천명 속에 숨어버리면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은 자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 왕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기쁜 뜻을 수행토록 하셨습니다(28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25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며 물리칠 사람은 물리치시고 심판대에 올릴 사람은 올리시는 전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배신자들로 하여금 불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25절).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또한 견고케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낮고 친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26절).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면 넘어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 인간의 집단 능력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능력 있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었습니다.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꿰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24절).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국가와 개인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5) 인간의 어려운 난제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데는 거친 물결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발할 때는 깊은 강물도 마르게 됩니다(27절). 의사가 환자에게 사형선고를 해도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해지고 당대의 제일 가는 제벌의 재산도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지 않으면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2. 구속받은 영혼은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호를 높이는 일과 인류의 속죄와 회복을 위해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왜냐 하면 속죄 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늘', '땅', '산', '나무'까지 노래하라고 초청합니다. 이 같

은 구원의 즐거움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의 기쁨일 뿐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생겨진 기쁨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큰 구원을 받고도 노래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노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눅 19:40).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에는 진리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탄로 나게 됩니다.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25절). 예루살렘의 회복이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성취될 것입니다. '내 종은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고, '내 사자'는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사야 뿐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오바다, 미가, 스바냐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강물이 말라 육지가 되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26절). 이 말씀은 흥해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에 대해서는 중건하게 하실 것이고 황폐한 것은 복구시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생활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3. 개인 고레스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고레스 왕(BC 559 - 529 재위)은 이사야 보다 약 150년 이후에 있었던 바사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레스 왕이 큰 은인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28절). 목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움을 받은 왕입니다. "나의 목자'란 내 백성의 목자라는 뜻으로 고레스의 특별한 왕권을 말합니다.

고레스에게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것이 더 귀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28절).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킴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의 기초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왕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고레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모퉁이 돌로, 때로는 주춧돌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뽑으신 것입니다.

正路(정로)를 향하여

김광신 장로(1교구)

젊을 때는 혈기 때문에, 무경험 때문에 정로(正路)를 가기 어렵다고 변명했다.

그렇다면 중년을 넘은 나이에는 무슨 구실 때문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고 둘러댈 수 있을까? 돈 때문에 명에 때문에 신분유지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저차원적이다.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감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강조하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유구무언이다.

이제 철이 들고 싶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이 되었으니 정도(正道)를 가고 싶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생명이 됨을 느끼고 싶다. 누가 내 출발에 동행자가 되고 반려자가 될 수 있을까?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지겹게 느낄 수도 있는 이 길에 동참을 동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 타났으면 좋겠다. 의인의 반열에 서는 것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래도 의인으로 살아야 하고 의인의 회중에 속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니 정도(正道)를 감으로 이 고행을 시작해보리라.

예수가 걸어오신 길이 그 길이었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부탁하셨기에 우리도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됨을 알기에 세상의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의 회귀를 선언해본다.

지난 목요일(26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스런 눈빛에 이끌려 일평생 주님의 양들을 돌보겠노라고 헌신한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서울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106교회 중 56교회 목회자69명이 참석한 농어촌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교마저 폐교가 되는 황폐한 우리의 농촌현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사명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귀하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비전 2020운동 본부장인 이병생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경건회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자"(단12:1~4)라는 주제로 당회장 이종운 목사의 말씀을 전하셨다. "어둠을 밝혔던 하나님의 사자 다니엘은 정직, 경건으로 세상과 짝한 적이 없이 한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구장의 빛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셨다. 역사에 빛을 비친 자들은 어둡고 피로운 시대에 살았던 자들이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말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자들로써 승리해야 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온 청춘을 다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으로 위로, 격려하셨다.

2부 간담회에선 경북 청송수락교회 이창규목사, 전북 진안영광교회 이양재 목사, 충남 금산 동수 교회 신형수 목사의 농어촌 교회 사역 실정 발표가 있었다.

점심시간엔 8층 만나 홀로 입장하시는 목회자들에게 따뜻한 박수갈채가 이어졌고 천국 문 앞에서도 이런 환호성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전도회나 기관 또는 개인이 결연을 맺은 목회자와 만나기 위한 만남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산가족을 만난 것처럼 기독교 동역 해 온 영적인 가족의 상봉현장은 기쁨으로 환한 웃음꽃이 만발했다.

사모님과 오랜만의 외출을 하신 목사님, 가장 먼 제주도 서광교회의 강순오 전도사님, 수화 통역자와 함께 참석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춘양 농아인 교회 이종순 전도사님(사라전도회 후원) 등이 눈길을 끌었다.

식사 후 3부엔 이종운 목사님의 "종교 다원주의와 농어촌 전도" 특강이 있었고 농어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도 갖었다. 매년 8월중 한, 두 교회에 농촌봉사단을 파송해 70인 전도대의 훈련받은 봉사자들이 노방 전도 및 축호 전도를 통해 자매교회의 부흥을 돕고 있다.

서울교회가 새 예배당을 지어 입장하면서 그 동안 사용해 오던 교회용품들을 필요없어 교회에서 가져 갈 수 있다. 일정을 마치고 사역지로 돌아가시는 목회자들에게 이종운 목사님의 저서"크리스찬 지도자들"한 권과 찬송가 반주기, 작은 정성이 전해졌다.

문형미 (편집부)

농어촌교회 지도자 초청 세미나 현장 스케치

새로왔어요-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나갔었죠.

김중연, 박미경 성도 (11교구)

3월 새가족 환영회에서 '군대 훈련병 시절 초코파이 준다길래 교회 몇 번 나갔다가 오늘에야 전가족이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됐다.'고 고백한 한 젊은 가장을 기억하는지요?

•어떻게 등록하게 됐는지요?

-김연옥 권사님과 자녀 결혼식 피로연 출장 뷔페를 맡아 몇 차례 접하면서 교회출석을 권유받고 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아내와 에리(14), 해용이(12)도 함께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느낀 점은?

-아직 뭐라 말하긴 곤란한데 예배 중 성경봉독 시 말씀을 찾아보면 벌써 끝나있고 찬송가도 찾아서 따라 부르려고 하면 끝나버려요. 새가족부에서 주기도문부터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죠.

•뷔페 일을 하신다고요?

-예, 출장 뷔페도 규모가 적지 않아 요리사와 별도 공장을 운영하고 형제와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시작한지 20년이 됐는데 사람들의 입맛이 고급화되고 다양해져 고객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우리 맛 음식을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잘 만드는 요리와 비결은?

-자장면을 제일 자신 있게 만듭니다. 비결은 신선한 재료와 마음을 쏟는 거죠.

2020 군 선교 운동으로 부린 씨앗이 이처럼 하나 둘 열매 맺어 지기를 기도한다.

젊은 날 나왔던 교회에 지금에야 등록하게 된 김중연 박미경 성도



고백

하정자 권사(7교구)

정질을 당할 때는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웠지만 추한 허물 들추일 땐 한없이 원망스러웠지만

부담히 다듬고 씻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꼬리를 잘라내야 하는 도마뱀의 지혜도 얻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어인 사랑인데도 아무래도 못마땅해서 때로는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로 주를 바라보던 내가....

이제는 ...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거기에 깊이 뿌리내려 갈 수 있도록 나를 돌보아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 가난한 인생을 섭리하시는 주님! 이제는 내 영혼이 평안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하나이다.

70인 전도대의 감격을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마다 70인대 전도대에서 복음전도를 위하여 모일 수 있도록 시간과 능력과 지혜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몇분이 모여서 경건회를 갖고 교회중심의 이웃(식당, 병원, 약국, 식품점, 기타)을 돌며 만나는 사람마다 <순례자>와 <전도지>를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시간의 기쁨은 형언하기 어렵고 이제는 토요일이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마음으로 기다려집니다.

-겉에 질리고 무능했던 열한제자가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난 후의 놀라운 변화를 생각해 볼때,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실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예수님을 만난 후의 변화된 모습을 온 이웃과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사이버 공간까지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교회가 70인 전도대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3시 605호실에서 함께 모이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김치세미나에 도움주신 가정

이종운 목사 홍순복 사모 가정, 이재권 집사, 나미용 집사

E-mail이 도착했습니다. <.....>

불어권 선교의 문(Gate)이 열릴 수 있도록

문명속 선교사 (카메룬에서)

사랑하는 서울교회성도님들께
 서울교회의 정성어린 헌금이 카메룬신학교의 빈약한 도서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입당감사헌금으로 마련된 도서들이 미래 카메룬교회의 개척자들을 양성하는 기틀이 된 것을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기뻐하며, 서울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IMF 때에 이런 지원을 해 오나 합니다. 김치 세미나에도 놀라고 있습니다. 한 교단도 감히 계획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라고. 주님께서 서울교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큼니다.

저는 특별히 주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선교세계에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선교의 필요가 그 어느 곳과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불어권이 이번 김치 세미나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참가자중 3분의 일이 신학교 사역 전담자인 것을 볼 때, 이번 세미나는 불어권 선교에서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사역자들의 자질문제인데, 사역자를 양성하는, 그 중에서도, 중부아프리카의 주요신학교 학장들과 교수들이 이번 김치 세미나에서 부흥을 체험하고 자국에 돌아가서 미칠 영향력을 생각만 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프리카교회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에도 큰 축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교회에 불어권 세계가 조금씩 알려져 가고 있고, 선교도 시작되고 있지만, 불어권선교의 키(Key)가 되는 인물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국에 초청된 적은 없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선교하러 내려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이, 부활의 주의 능력으로 고난을 달고 일어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안수를 받으며"

신미숙 목사(초등부지도)

초록의 신비함이 있는 의미있는 부활과 생명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목사 임직식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자를 부르셔서 이 귀하고도 거룩한 길을 가도록 귀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노래 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은 더욱 깊어지면 가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가슴 벅차게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잊을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 길이 고속도로건, 골짜기건, 광야건 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나만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비전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그러나 가슴깊이 자리한 곳을 가려고 하고 준비중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선교전략은 일단 교육, 복지 쪽으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기에 사회복지와 선교 공부를 계획하고 있으며 선교사 경력을 가지고 한국에서 세계선교사역의 행정 및 제반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가는 선교사로, 후에는 보내는 선교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한국의 선교사 운동을 다시금 활성화시켜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탈북난민 보호 UN청원 운동 서명 1000만명 돌파 감사예배 및 UN청원 대표단 픽승식

지난 금요일 오후 7:30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UN청원 서명 일천만명 돌파 감사예배 및 UN청원 대표단 픽승식이 있었다.

UN청원 서명 일천만명 돌파는 청원운동이 추진된지 만 2년 만에 달성된 것이었다. 오늘 행사에는 탈북난민 여러분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405장 찬송(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며 춤을 추며 감사드렸으며 특히 이 자리에 얼마 전 북한에서 의료활동을 하다가 추방된 독일인 의사 폴레르첸씨와 탈북에 성공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였으나 북에 두고 온 아내를 구해내기 위해 다시금 북한에 잠입했다가 잡혀 처형된 유태준씨의 어머니와 유자녀가 참석하여 탈북난민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을 모두가 직시하고 이번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지난 금요일의 행사로 우리의 모든 책임과 의무가 끝이 난 것은 아니다. 이제 겨우 목표를 위한 수단을 만든 것이고 반환점을 돈 것이다. 이제부터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UN의 이름으로 난민촌이 속히 세워져 국제 기구의 감시와 보호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방황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성도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날 파송된 대표단은 서울교회 김상철 장로를 포함한 18명이다.

독일인 의사 폴레르첸씨와 고 유태준씨의 어머니와 유자녀
 UN청원 대표단 - 성공적인 결과를 기도하며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9일(주일) 오후 3시30분 온누리 교회 93주년 감사, 헌당 및 임직예배에서 설교한다. 5월3일(목)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에서 연세 의료선교 비전 제하의 발제를 한다.
 - 최학인 장로 최소희 권사 가정 (8교구) - 닭 170kg기증
 - 오정수 장로 (2교구) - 농어촌 교회 지도자 녹음반주기70개 선물 기증
 - 김세계 집사 (4교구) - 탈북 난민 T셔츠 168벌 기증
 - 신용식 집사 김신영 집사 - 대치동 미도아파트로 이사
 - 이정연 집사 최광성 집사 - 수지로 이사
 - 서영필 집사 - 신림동으로 이사
- ☞ 목회자 세미나 간식 제공 가정 : 신운우집사 김복순 집사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제1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9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하여
4. 탈북난민 보호 UN청원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